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남아프리카공화국

Republic of South Africa

2023년 9월 27일 | 책임조사역(G3) 박선미

- 국가개황
- 경제동향
- 경제구조 및 정책
- 정치·사회 안정
- 국제신인도
- 종합의견



일반개황

면적 1,221천 km ² 	인구 6,060만 명 (2022 ^e) 	정치체제 대통령제 	대외정책 친서방 중립 
GDP 4,057억 달러 (2022 ^e) 	1인당GDP 6,694달러 (2022 ^e) 	통화단위 Rand(R) 	환율(U\$기준) 16.36 (2022 ^e) 

- 아프리카 대륙 최남단에 위치한 남아프리카공화국(이하 "남아공")은 2022년 GDP 기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2위이자 한반도의 약 5배에 달하는 국토면적을 보유한 아프리카 경제 대국임. 1994년 흑인 정권 출범 이전까지 소수 백인 정권의 인종차별정책인 아파르트헤이트가 유지되었으며, 그 영향으로 인종 간 소득과 사회적 지위에 격차가 존재함.
- 대부분의 광물자원을 보유한 자원부국이며, 광산업은 남아프리카공화국 전체 GDP의 8%(2021년 기준)를 차지하며 50만 명 이상의 고용효과를 내는 핵심 산업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가장 크고 발전된 경제를 가지고 있으나, 높은 실업률, 기술 부족 및 전력 부족 등 경제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상존하고 있음.
- 여당인 아프리카민족회의(ANC)의 무능과 부정부패에 따른 지지기반 축소, 실업 및 빈곤 문제 악화로 인한 서민층의 시위 빈발 등 불만이 고조되는 가운데 2024년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됨.

우리나라와의 관계

국교수립 1992. 12. 1 수교 (북한과는 1998. 8. 10)

주요협정 항공협정('95), 이중과세방지협약('96), 투자보장협정('97), 과학기술협력협정('04), 원자력평화적이용협정('11)

교역규모

(단위 : 천 달러)

구분	2020	2021	2022	주요품목
수출	666,319	988,619	1,144,700	자동차, 석유화학제품, 직물
수입	1,692,102	2,620,975	3,769,503	철강금속, 농림수산물

해외직접투자 현황(총투자 누계, 2023년 3말) 84건, 337,502천 달러

국내경제

(단위: %)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경제성장률	0.3	-6.3	4.9	2.0	0.3
소비자물가상승률	4.1	3.3	4.6	6.9	5.8
재정수지/GDP	-4.7	-9.6	-5.6	-4.5	-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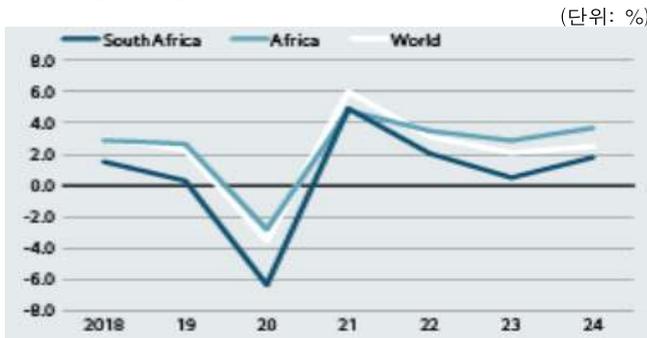
자료: IMF, EIU

전력 부족 심화 등으로 경제성장 둔화 지속 예상

- 남아공의 경제성장률은 세계 평균 및 아프리카 평균을 하회하고 있으며,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6.3% 역성장을 기록한 이후 2021년에는 기저효과에 의해 4.9%로 반등하였으나, 기준금리 인상, 높은 실업률, 전력 부족 심화 등으로 인해 2022년에는 2.0%로 다시 둔화됨. 한편, 2023년에는 심각한 전력 부족 지속, 높은 부채와 실업률, 세계 경기 둔화 등 대내외 여건이 취약하여 경제성장률이 1% 미만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IMF).
- 불안정한 전력 공급이 남아공의 경기 침체에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는 가운데 2022년 중 200일 이상 지속된 순환단전(Load-Shedding)이 2023년에는 250일 이상 시행될 것으로 예상됨. 한편, 남아공은 심각한 전력난으로 하루 최대 12시간 정전을 겪자 2023년 2월 국가 재난 사태를 선포하였으며, 4월 재난 사태가 해제되었으나 전력 부족은 여전히 심각한 수준임.
- 남아공의 2023년 1분기 경제성장률은 전년 동기 대비 0.2% 증가한 0.4%를 기록함. 10개 산업 중 8개 산업은 플러스 성장을 기록하였으나, 전기·가스·수도(-1.0%)와 농업·임업·어업(-12.3%) 2개 산업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함.
- 남아공 정부가 제시한 2023년 경제성장률 목표는 0.3%이며, IMF, ADB, World Bank 등도 0~1%대의 성장*을 예측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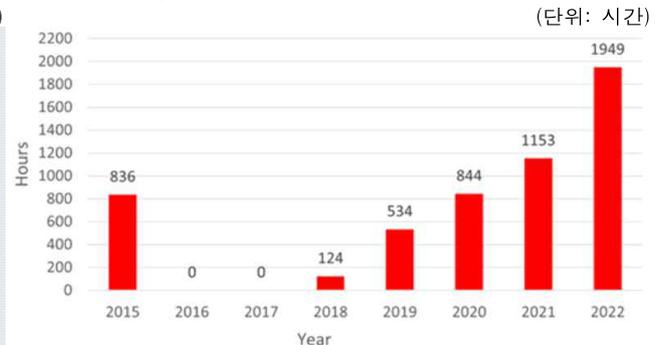
* 2023년 남아공 경제성장률 전망 : IMF 0.1%, ADB, World Bank 1.4%, IHS Markit 0.4%, EIU 1.3%

[그림 1] 남아공 연도별 경제성장률 추이



자료: EIU

[그림 2] 남아공 연도별 순환단전(정전)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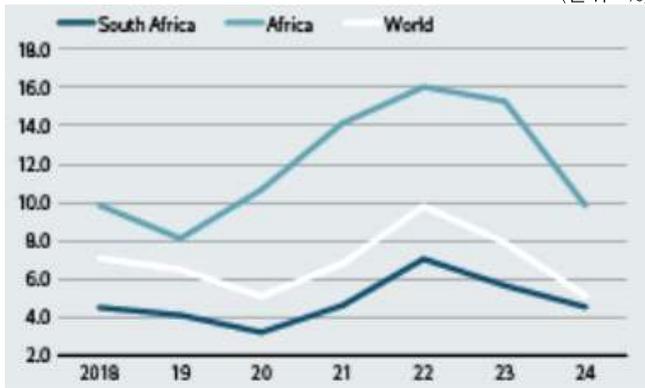
자료: Business Tech

국내경제

주로 식료품 가격 상승이 소비자물가 상승을 견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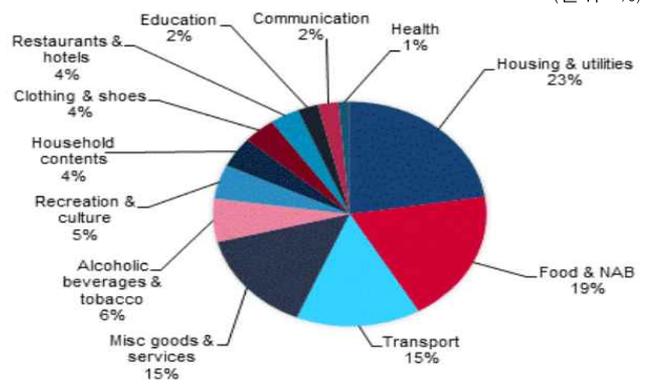
- 2022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연평균 6.9%를 기록하여 남아공 중앙은행(SARB)의 인플레이션 목표 범위(3~6%)를 벗어남. 2023년 5월 SARB는 달러 강세 등으로 인한 남아공 란드화의 가치 하락, 식료품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2023년 인플레이션 전망치를 기존 6%에서 0.2% 포인트 상향 조정하여 6.2%로 제시함.
- 한편, 남아공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6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전월보다 0.9%p 내린 연 5.4%로 둔화되었으며, 이는 2021년 10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라고 보도됨. 식품과 비주류 음료의 물가상승률은 지난 3월 14.0% 최고치를 기록한 이래 3개월 연속 낮아져 연 11.0%를 기록하였으나, 설탕을 포함한 디저트류의 물가상승률은 연 16.4%로 2017년 6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함.
- SARB는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2021년 11월부터 총 10회에 걸쳐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4.0% → 8.25%)해왔으나, 2023년 7월에는 최근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주춤한 상황을 감안하여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으며, 2024년 인플레이션이 더 완화될 경우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높음.

[그림 3] 남아공의 소비자물가상승률 추이 및 전망 (단위: %)



자료: EIU

[그림 4] 남아공 소비자물가 구성요소 (단위: %)



자료: Fitch Solution

재정수지 적자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

- 2022년 남아공의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중은 -4.5%로 전년(-5.6%)보다 개선됨. 남아공은 인프라 확충과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 등으로 수년 간 재정수지 적자 기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 IMF에 따르면 남아공의 전기 요금 인하, 세수 감소, 정부 차입 비용 증가 등으로 당분간 재정적자는 불가피하며,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중은 2023년에 -6.0%에 근접하여 전년보다 악화될 것으로 전망함. 이는 경제성장에 대한 하방 위협으로 작용하며, 추가 조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힘.
- 한편, 2023년 2월 남아프리카 재무장관 에녹 고동와나(Enoch Godongwana)는 2025/26회계연도까지 재정적자 감소 및 국가 부채 부담 안정화 등을 목표로 내걸었지만 달성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대외거래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달러, %)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e
경 상 수 지	-10,200	6,701	15,500	-1,698	-7,044
경상수지/GDP	-2.6	2.0	3.7	-0.4	-1.8
상 품 수 지	2,487	17,667	30,484	14,039	10,950
상 품 수 출	89,927	85,408	121,772	123,501	113,380
상 품 수 입	87,440	67,741	91,288	109,462	102,430
외 환 보 유 액	45,904	44,270	43,149	46,487	50,325
총 외 채	185,560	175,411	170,015	174,374	182,738
총외채잔액/GDP	47.8	52.0	40.6	43.0	45.8
D.S.R.	13.0	15.7	17.3	10.6	29.7

자료: IMF, EIU

주요 수출품인 광물 공급의 어려움 등으로 당분간 경상수지 적자 지속 전망

- 남아공 경상수지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내수 침체에 따른 수입 급감으로 2020년 및 2021년 흑자를 기록한 것을 제외하면 2002년부터 적자를 기록해옴. 2022년 경상수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글로벌 수요 약화로 인한 남아공 상품수출 가격 하락으로 다시 적자 전환하였으며, 이러한 추세는 2023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남아공은 귀금속(보석), 광물성 원료(광,슬랙)의 세계적 수출국이며, 기계류, 전기기기, 차량 및 부품 등을 주로 수입하고 있음. 2020년 기준 남아공 백금은 세계 수요의 75%, 팔라듐은 35%를 차지할 정도로 핵심 광물을 보유한 자원 부국이나, 코로나19로 인한 광산 생산 활동 저하, 최근 심각한 전력난 등을 겪으며 광물 생산량이 감소하여 자원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그림 5] 남아공 상품수출·수입액 및 상품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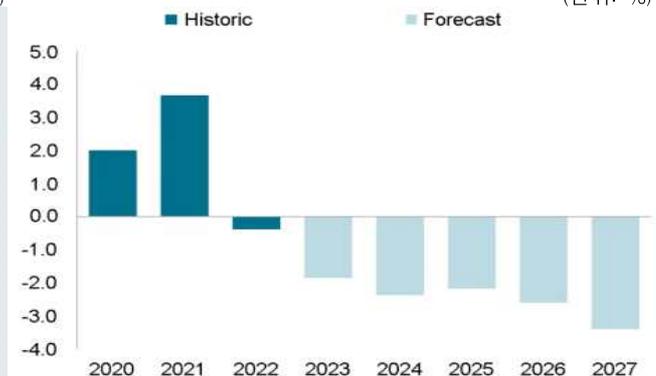
(단위: 백만 달러)



자료: EIU

[그림 6] 남아공 경상수지/GDP 추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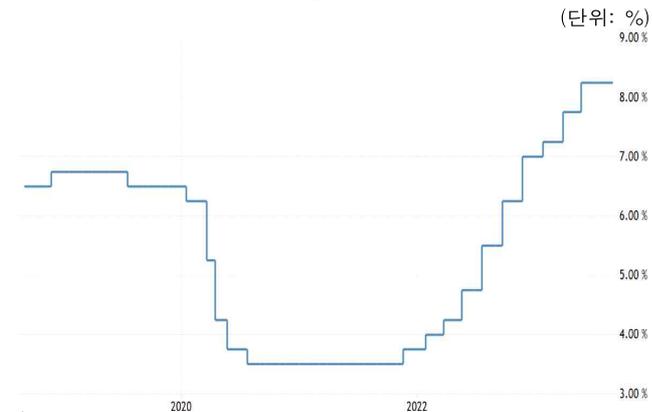
자료: IHS Markit

대외거래

미국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란드화 가치 약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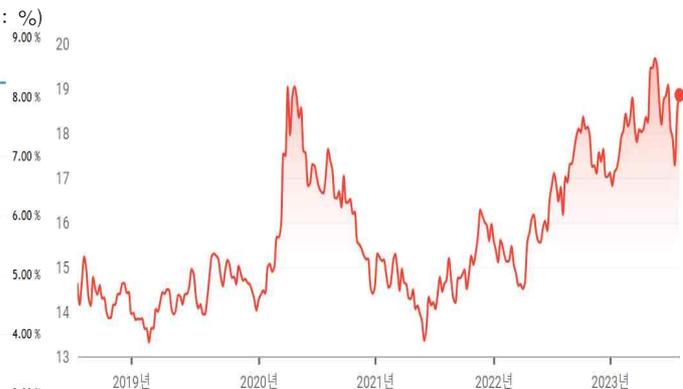
- 남아공 란드화의 미 달러화 대비 환율은 글로벌 인플레이션, 미 연준의 금리인상 기조 등으로 2021년 평균 15.7에서 2022년 평균 17.18로 상승하는 약세를 보였음. 2023년 9월 14일 현재 란드화의 미 달러화 대비 환율은 18.78로, 란드화 가치는 여전히 약세를 보이고 있음.
- 남아공 중앙은행은 2021년 11월부터 10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인상해왔으며, 2023년 5월 25일 기준금리를 7.75%에서 8.25%로 0.5%p 인상하여 1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후 현재까지 동결 중임. 글로벌 성장 둔화에 따른 주요 광물 수출가격 하락 및 미 연준의 연내 추가 인상 가능성을 언급함에 따라 란드화 가치는 2023년에도 약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됨.
- 2022년 남아공 외환보유액은 464억 달러(월평균수입액의 3.8개월분)로, 란드화 약세와 경상수지 적자 폭 확대에도 불구하고 전년(431억 달러)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함.
- 해외송금 유입 증가율 둔화,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고조, 란드화 가치 추가 하락 등이 예상됨에 따라 외환보유액 부족으로 인한 대외유동성 압박 가능성도 상존함.

[그림 7] 남아공 기준금리 추이



자료: Trading Economics

[그림 8] 미 달러당 란드화 환율 추이



자료: Google Finance

외채상환능력

총외채잔액은 증가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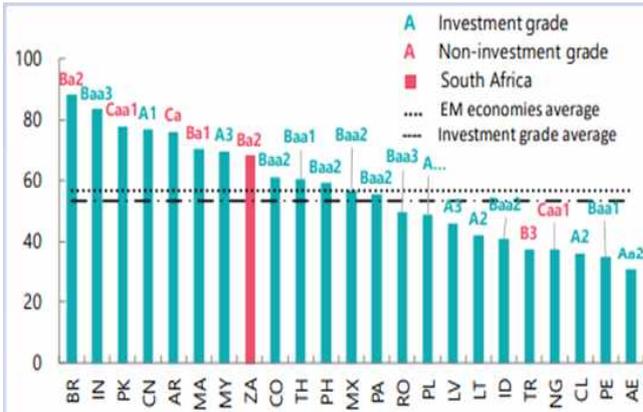
- 2022년 남아공의 GDP 대비 총외채잔액 비중은 총생산 감소, 총외채잔액 증가 등으로 전년(40.6%) 대비 상승한 43.0%를 기록하였으나, D.S.R은 총수출액 증가와 외채원리금 상환액 감소로 전년(17.3%)보다 하락한 10.6%를 기록함. 다만, 2023년에는 전년 대비 2배 이상의 외채원리금 상환액 증가가 예상되어 D.S.R가 30%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됨.
- 2022년 남아공의 총외채잔액(1,743.7억 달러) 구성은 단기 22.0%(384.1억 달러), 중장기 78.0%(1,359.6억 달러)로 추정됨. 한편, 2023년 2월 남아공 정부는 2025/26회계연도까지 국가 부채 부담 안정화 계획을 발표하였으나, IMF는 남아공의 GDP 대비 정부 부채비율은 70%로 높은 편이라고 언급하며 단기간 안정화 계획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임.(IMF 보고서(2023. 6월))
- OECD(2023. 5월)에 따르면, 남아공의 총외채잔액 규모 및 GDP 대비 총외채잔액 비중은 당분간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

* 남아공 총외채잔액(백만 달러) : ('20)175,411 → ('21)170,015 → ('22)174,374 → ('23)182,738 → ('24)194,242 → ('25)205,643

** 남아공 GDP 대비 총외채잔액(%) : ('20)51.9 → ('21)40.6 → ('22)42.9 → ('23)45.7 → ('24)46.7 → ('25)47.7

[그림 9] 신흥국들의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

(단위: %)



자료: IMF

[그림 10] 남아공 총외채잔액 등 추이

(단위: 백만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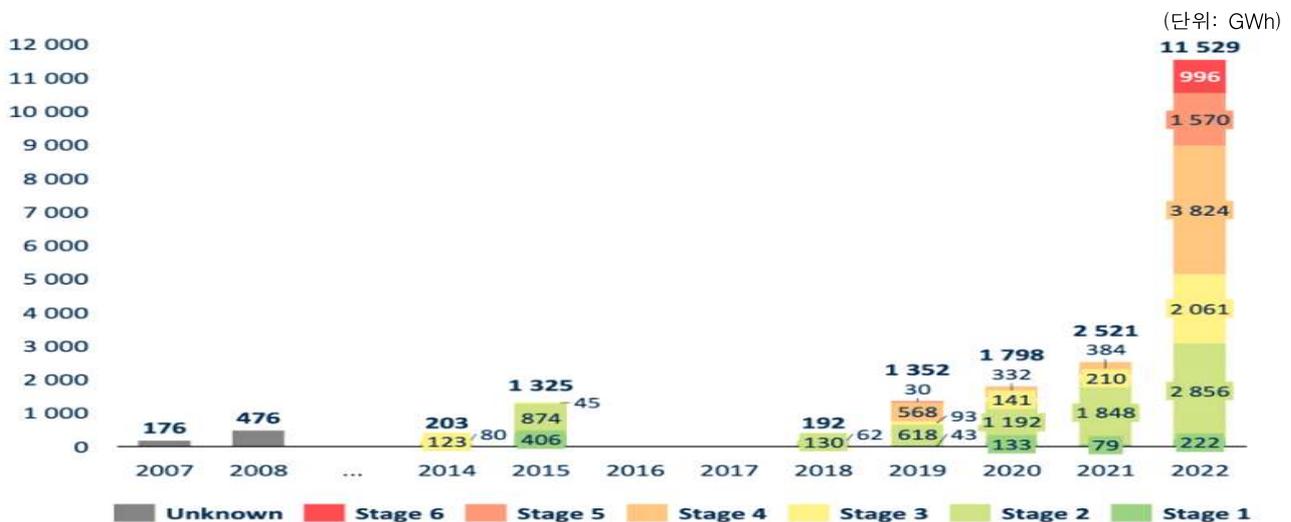
자료: OECD

구조적취약성

최악의 전력난 지속

- 남아공 전력 생산의 90% 이상을 담당하는 국영 전력회사 Eskom은 전력 공급량이 수요량을 따라가지 못해 2008년부터 8단계의 순환단전(load shedding)을 시행해왔으며, 2022년에는 4단계에서 6단계로 상향 조정하여 하루 최장 12시간의 단전을 시행하는 등 상황은 시간이 지날수록 심각해지고 있음. Eskom 총괄 책임자에 따르면 올겨울에는 최고 단계인 8단계까지 상향 조정될 수 있으며, 전력문제가 단시간 내에 해결될 것 같지 않다고 밝힘.
- Eskom은 방만 경영, 무리한 투자 등으로 막대한 부채를 지고 파산 위기에 처한 상태이며, 이로 인해 시기적절하게 화력발전 시설을 정비하지 못하고 새로운 시설 확충도 지연되면서 15년 넘게 전력난에 빠졌다는 대내외의 비난을 받고 있음.
- 2023년 2월 22일 남아공 정부는 Eskom의 파산을 막기 위해 2023년 정부 예산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으나, 남아공 정부지출은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계속 정부 수입을 초과한 상태여서 본 지원이 정부 재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동시에 제기됨.
- 한편, 아프리카 제2의 경제대국이자 전력 공급처인 남아공이 최악의 전력난에 빠지면서 주변 국가의 전력공급 및 경제활동에 연쇄적인 어려움을 미침. 그웨데 만타쉐 남아공 광물자원에너지부 장관은 전력난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하루 1억 란드(약 70억 원)에 달한다고 발표하였으며, 세계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남아공 전력난에 따른 경제적 손실 규모는 240억 달러(약 31조원)로 추산함.
- 2023년 3월 9일 국제신용평가사인 S&P는 남아공의 심각한 전력 위기를 이유로 등급 전망을 '긍정적'에서 '안정적'으로 하향 조정하고 국가신용등급은 투기등급(정크)인 BB-를 유지함. 또한, S&P는 남아공 정부가 전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세운 계획을 잘 이행하지 못하면 등급을 더 낮출 수도 있음을 언급함.

[그림 11] 남아공 순환단전 추이(2007~22년)



자료: Energy for growth

성장잠재력

실업난 및 빈부격차는 점차 심화,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한 나라' 등극

- 남아공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2/4분기 실업률은 전 분기 대비 0.3%p 감소한 32.6%로 집계되어, 2021년 1/4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고 발표하였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임. 또한, 15~24세 청년실업률은 61%이고, 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한 실질 청년실업률은 71%로 심각하게 높은 수준임.
- 남아공 노동인구의 70% 이상이 고등교육을 받았으며 대부분 영어로 의사소통하는 데 어려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의 기술 부족, 교육 및 훈련 접근 용이성 부족, 인종차별 등의 고질적인 구조적 문제가 개선되지 않아 실업률이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음. 또한, 남아공의 순환단전 단계가 높아질수록 기업들의 생산성 하락 등으로 인한 일자리 창출이 쉽지 않아 실업난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세계은행 보고서(2022년 3월)에 따르면, 남아공은 '소득 재분배가 가장 불평등한 나라' 조사에서 164개국 중 1위를 차지함. 남아공은 아파트헤이트* 정책이 이미 1991년에 법적으로 폐기되었음에도 관습적인 차별이 지속되어 인종별 빈부격차가 계속 확대됨. 또한, 남아공은 상위 10% 인구가 부의 71%를 차지하는 반면 하위 60%는 7%만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부의 불평등 또한 높으며, 이러한 불평등은 인종차별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분석됨.

* 백인 정권의 유색인종에 대한 차별 정책

- 최근 남아공 대표 휴양지에서 백인만 출입 가능한 수영장을 운영하고 명문 대학교인 스텔렌보스대학에서 백인 학생이 흑인 학생의 소지품에 소변을 보는 등 남아공 내 인종차별은 여전히 만연함. 이에 2022년 12월 말 시릴 라마포사 대통령은 인종차별주의자들의 행동을 보고만 있지 않겠다고 말하며 법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내릴 예정이라고 경고함.

[그림 12] 남아공 실업률 추이



자료: 남아공 통계청, Trading Economics

[그림 13] 남아공 불평등의 요인(원인)



자료: 세계은행(Worldbank)

정책성과

부정부패 대응에 확고한 의지

- 라마포사 대통령은 부정부패 위원회를 구성하여 부정부패에 단호하게 체계적으로 대응하려는 의지를 보임. 위원회는 법안 정비, 내부 고발자에 대한 보호조치 강화 등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업무를 주로 수행함. 2019년부터 2023년 3월까지 약 32건의 부정부패 사건에서 187명의 피의자를 검거했고, 70억 란드 이상이 반환되었으며, 129억 란드의 자금과 자산이 동결됨. 라마포사 대통령은 올해 부정부패 전담 수사국을 검찰청 내 상설기구로 신설하여 더 강력히 부정부패에 대응할 예정임을 밝힘.
- 한편, 2022년 국제투명성기구(IT)의 부패인식지수(CPI) 보고서에서 남아공은 43점(100점 만점)으로 조사 대상 180개국 중 72위를 기록하였음. 이는 1년 전 70위보다 2단계 하락한 결과로, 보츠와나보다는 낮고 카메룬, 콩고민주공화국 등보다는 높은 순위임.

※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주요 국가들의 부패인식지수: 보츠와나(60점, 35위), 탄자니아(38점, 94위), 앙골라(33점, 116위), 케냐(32점, 123위), 잠비아(33점, 116위), 카메룬(26점, 142위), 우간다(26점, 142위), 콩고민주공화국(20점, 166위) 등

사회보장 법안 개정, 발의 등 서비스 개선 노력

- 남아공 정부는 2012년 국민건강보험을 도입하여 운영해 오고 있으며, 2022년 12월에는 국민들의 더 나은 의료 서비스 접근을 위해 전 국민 보편적 의료 보장 내용을 담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법안(National Health Insurance Bill)을 발의함. 한편, 본 법안이 의료 시스템의 근본적인 문제는 등한시키고 돈으로만 해결한다는 지적도 있으나, 남아공은 사회보장 서비스 개선에 노력을 가하고 있음.
- 남아공은 2023년 7월 6일 한국을 방문하여 진료비 적정 심사 프로세스, 의료 질 관리 등 한국 건강보험 운영 노하우 등을 배우는 등 의료 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 중임.

정책성과

정부 주도의 인프라 건설 추진 증이나 일부 공기업 경영난으로 프로젝트 차질 발생

- 2020년 남아공 정부는 경제 재건 및 회복 계획의 주요 내용으로 공격적인 인프라 투자를 단행하겠다고 발표함. 교육, 상하수도, 위생, 주택 등의 사회 인프라와 항구, 도로, 철도 등의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을 중점으로 진행 계획을 세움. 인프라 구축과 관련하여 민간 투자 참여 장려를 위해 Infrastructure SA 및 인프라 기금을 설립하고, 동 기금을 통해 향후 10년 간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에 약 1조원 규모의 투자자금 유치를 골자로 하는 계획을 세움.
- 남아공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중 인프라 시설이 가장 잘 구축된 나라이며, 인프라 건설 산업은 남아공 GDP의 4%를 차지하는 등 정부 주도의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가 오래 전부터 꾸준히 진행되고 있음. 다만, 국영 도로공사 Sanral, 국영 전력공사 Eskom 등 공기업의 재정 및 경영 어려움으로 일부 프로젝트가 중단되거나 무기한 연기되는 등 차질을 빚고 있음.
- 한편, 남아공 건설산업은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전년 대비 8% 위축을 보였으나, 정부 주도의 강력한 추진 의지로 전체적인 건설산업은 다시 플러스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라마포사 대통령은 2023년 국정연설에서 남아공 인프라 건설에 가장 취약한 점은 건설 기술과 프로젝트 관리 역량 부족이라고 지적함. 또한, 농촌 지역 생활 인프라 부족을 언급하며 농촌 지역 인프라 건설에 추가 자금(약 6억 란드화)을 할당함.
- 또한, 남아공 정부는 인구 5만 명 규모의 무이클루프, 중급 규모의 가우텡, 소규모의 이스턴케이프 등 최소 3개의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올 초 발표함. 다만, Eskom이 남아공 전력 생산의 95%를 담당하고 있으나, 석탄화력발전소들의 설비가 노후화되고 제대로 유지되지 않음. 이에 따라 거리의 신호등, 상수도 등 공공 서비스, 기업과 가정 등 전기를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곳에서조차 하루 8시간 이상 전기를 공급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가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미지수임.

[그림 14] 남아공 건설산업 현황 및 전망

(단위: 십억 란드, %)



자료: Fitch Solutions

정치안정

2024년 총선을 앞두고 흔들리는 여당 지지율

- 2019년 5월 총선에서 아프리카민족회의(ANC)가 57.5%의 득표율로 전체 400개 의석 가운데 총 230개 의석을 확보하여 집권여당 지위를 유지, 당 대표인 시릴 라마포사(Cyril Ramaphosa)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¹⁾함.
- 라마포사 대통령은 2022년 12월 19일 ANC 전당대회에서 불법 자금 수령 등의 의혹 제기에도 불구하고 당 대표로 재선에 성공, 2024년 총선에서 ANC가 승리할 경우 법에 따라 대통령 연임이 보장됨.
- 라마포사 대통령은 개인 소유의 농장에서 발생한 58만 달러(약 7.4억원) 도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의심스러운 돈의 출처와 미신고 대응 등으로 불법 자금 수령 등의 의혹을 받음. 이에 그가 외국환 관리법을 위반했다면 남아공 법에 따라 탄핵 대상이 되어 야권의 탄핵과 조기 총선 요구가 빚발쳤으나, 과반 의석을 확보한 ANC에 의해 의회에서 탄핵 절차 개시안이 부결됨.
- ANC는 2024년 5월 총선에서도 승리를 노리고 있으나, 약 30여년을 집권해오면서 무능과 부패 등으로 지지도가 하락하고 있으며,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처음으로 지지율*이 50% 아래로 떨어져 ANC의 2024년 총선 승리는 불확실한 상황임. 이에 ANC는 전력 공급 활성화, 부정부패 척결, 국민건강보험법안 발의, 업무상 재해 보상법 개정 등 민생 안전을 돌보는 정책을 통해 지지율 회복에 노력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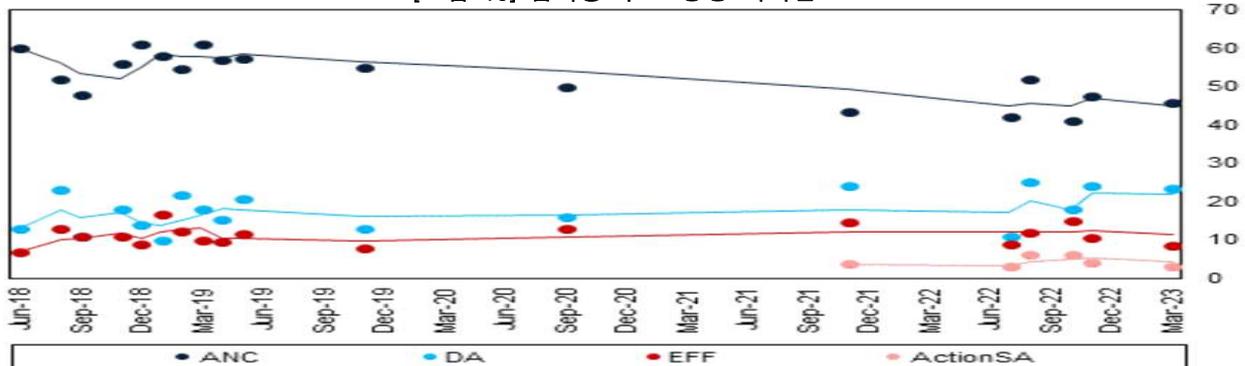
* ANC 지지율: 62.65%('94년) → 66.4%('99년) → 69.7%('04년) → 65.9%('09년) → 62.2%('14년) → 54.0%('16년) → 46.0%('21년)

[표 1] 남아공 주요 정당 개요

정 당	아프리카민족회의(ANC)	민주동맹(DA)	경제자유사당(EFF)	잉카타자유당(IFP)
대 표	Cyril Ramaphosa	John Steenhuisen	Julius Malema	Velenkosini Hlabisa
보 유 의 석	230 (57.5%)	84 (20.77%)	44 (10.79%)	14 (3.38%)

자료: 남아공 의회 (2022년 9월 기준)

[그림 15] 남아공 주요 정당 지지율



자료: Fitch Solutions

1) 남아공은 대통령을 직접선거로 선출하지 않고, 의회 다수당 대표가 대통령직을 맡는 시스템임.

사회안정

남아공,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강화된 관찰대상 국가'로 지정

- 2023년 2월 22~24일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개최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²⁾ 총회에서 자금세탁 방지 및 테러자금 조달 금지를 위한 주요 과제와 FATF 국제기준 미이행국의 제재 방안 등의 안건이 논의됨. FATF는 각국의 국제기준 이행 상황을 평가하고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와 '강화된 관찰대상 국가'를 매 총회마다 공개하고 있음.
- FATF는 이번 총회에서 남아공을 '강화된 관찰대상 국가'로 편입시켰으며, 이 그룹에 속한 국가는 고객 확인 등 강화된 자금세탁 방지 관련 법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함
- 남아공은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기준 40개 항목들 중 20개를 충족하지 못했으며, 11개 항목에서 '나쁨' 수준의 평가를 받음. 참고로 현재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는 이란과 북한 2개국이고, '강화된 관찰 대상 국가'는 남아공 포함 총 23개국임.
- 에녹 고동와나(Enoch Godongwana) 남아공 재무장관은 FATF의 발표 후 자금세탁 근절을 위한 모니터링 비용을 추가 책정하고, FATF의 권고에 따라 자금세탁 방지 및 테러자금 조달 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법적 테두리를 지키고자 노력할 것임을 밝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신용영향점수는 4등급으로 평가

- Moody's는 남아공이 취약한 공공재정 및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수준과 함께 환경 및 사회적 충격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전반적으로 제한적이라 판단하여, 남아공의 ESG 신용영향점수(ESG Credit Impact Score)를 4등급(Highly Negative)으로 평가하였음.
- * Moody's는 ESG 등급을 1(긍정적)~5(매우 부정적)의 5단계로 구분하고 있음. 2022년 9월 Moody's 발표자료에 따르면 동사의 평가대상 144개국은 1등급 11개국(우리나라 등), 2등급 30개국(미국 등), 3등급 37개국(일본·중국 등), 4등급 47개국(베트남·인도 등), 5등급 19개국(이라크·베네수엘라 등)으로 분류됨. 특히, 선진국에 비해 지배구조(Governance)가 취약한 개도국의 경우 전체 107개국 중 1등급 국가는 없으며 41개국이 2-3등급, 66개국이 4-5등급에 분포되어 ESG 영향이 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환경)** 극심한 가뭄과 물 부족 등 기후조건에 취약한 남아공은 환경위험에 부정적으로 노출되어 있음. 아울러 에너지 공급 중 석탄에 대한 높은 의존도가 우려됨에 따라 환경(Environmental) 영향은 '다소 부정적(3등급)'으로 평가됨.
- **(사회)**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소득 불평등, 높은 실업률 및 살인율 등으로 인해 남아공의 사회위험은 높은 수준임. 또한, 유엔 마약 및 범죄 사무소에 따르면 남아공은 2022년 가장 폭력적인 국가 Top10에 속하는 등의 상황이 남아공의 성장잠재력을 제한하고 있다고 분석하며 사회(Social) 영향을 4등급(Highly Negative)로 평가함.
- **(지배구조)** 정부의 높은 부채와 소득수준은 낮은 편이나, 다른 국가들과 비교 시 특별히 위험을 초래할만한 요소는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배구조(Governance) 영향은 2등급(Neutral-to-Low)으로 평가됨.

2) Financial Action Task Force(FATF): 1989년 설립된 자금세탁 방지 및 테러자금 조달 금지 국제기구로, 미국·중국·일본 등 37개국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걸프협력회의(GCC) 등 39개 회원으로 구성됨.

국제관계

아프리카 시장 진출을 위한 거점 역할 수행 기대

- 남아공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가장 발전된 경제와 다각화된 산업구조를 보유하여 비즈니스 허브로 꼽히고 있으며, 남부·중부·동부 아프리카 국가들과도 정치·경제적으로 깊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특히, 아프리카자유무역지대(AfCFTA) 공식 출범으로 아프리카 내 선진 금융 및 산업 인프라 기반 보유, 자동차 등 주요 제조업이 발달한 남아공은 외국기업들의 아프리카 시장 진출을 위한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됨.
- AfCFTA는 상품과 서비스 인력 등 자유로운 이동을 기반으로 통합된 시장을 통하여 역내무역을 활성화시키고 아프리카의 결속과 발전을 이루는 데 목표를 두고 있으며, 2035년까지 아프리카 역내에서 약 4,000억 달러 이상의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AfCFTA는 2012년 아프리카연합(AU) 총회에서 아프리카 역내교역 활성화를 위해 창설된 자유무역지대로, 2019년 5월 30일 공식 발효, 2021년 1월 1일 공식 출범함. 55개 AU 회원국 중 에리트레아를 제외한 54개국이 서명하였으며, 2022년 11월 기준 남아공 포함 47개국이 비준을 완료함.

친러시아 행보 지속 시 미국의 경제보복 가능성 존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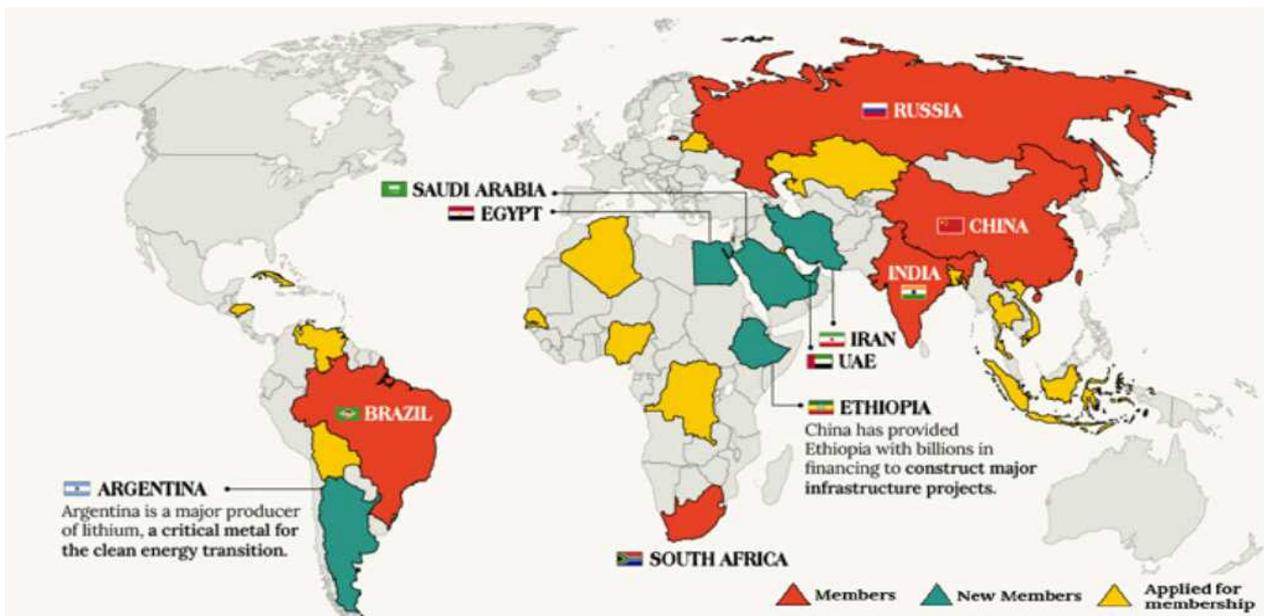
- 남아공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중립을 지킬 것이며, 협상을 통한 갈등 종식에 노력할 것이라고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하였으나, 실제로는 친러시아 행보를 보이고 있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을 규탄하는 UN의 투표에서도 남아공은 기권했으며, 미국의 반러 제재 동참 권유 또한 거부한 바 있음.
- 남아공, 러시아, 중국 3개국은 2023년 2월 17일부터 10일 간 남아프리카 연안 인도양에서 연합 해상 훈련을 실시함. 세 나라의 연합 해상훈련은 지난 2019년 11월 남아공 희망봉 인근에서의 첫 합동훈련 후 이번이 두 번째임.
- 미국은 남아공의 연합 해상훈련에 대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전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와 함께 훈련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불편한 감정을 표함. 남아공이 친러시아 행보를 지속할 경우, 미국은 남아공에 대한 무역 우대 자격 정지 등 다양한 경제보복을 가할 가능성이 상존함.
- 한편, 라마포사 대통령은 2023년 6월 18일 러시아를 방문하여 협상과 외교적 수단을 통해 현 사태를 해결해야한다고 밝히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공식적으로 촉구함. 다만, 미국 정부는 남아공이 작년 12월에 러시아에 비밀리에 무기와 탄약을 제공했다고 주장하며 남아공을 공개적으로 비난하였으나, 남아공은 이를 부인하고 있어 양국 간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음.

국제관계

남아공 주도하에 2023 브릭스(BRICS) 정상회담 개최

- 2023년 8월 22~24일 3일 간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서 개최된 브릭스(BRICS) 정상회담에 브라질, 중국, 남아공, 인도, 러시아 5개 회원국이 모두 참석함. 다만, 우크라이나 침공 등 전쟁범죄 혐의로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체포영장이 발부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정상회담에 외교장관을 보내고 본인은 화상으로 참석을 대신함.
- 브릭스(BRICS)는 경제규모가 크고 경제가 급속히 성장하는 5개 신흥국인 브라질(Brazil), 러시아(Russia), 인도(India), 중국(China), 남아공(South Africa)를 지칭하는 말임. 2022년 기준 브릭스 5개국은 전 세계 인구의 47% 및 전 세계 GDP의 37%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토 면적은 전 세계의 30%를 차지함.
- 이번 회담을 통해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UAE, 이집트, 아르헨티나, 에티오피아 6개국이 브릭스의 회원국으로 추가되어, 브릭스 회원국은 총 11개국으로 늘어남. 의장국인 남아공의 라마포사 대통령에 따르면 40개 이상 국가가 브릭스 가입에 관심을 표명했으며, 공식적으로 가입을 신청한 국가는 23개국이라고 밝힘.
- 브릭스는 회원국 확대를 통한 국제적 입지와 영향력 강화를 의도하고 있음. 그러나 한편으로 회원국이 5개국일 때도 국가들 간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어려움이 있었는데, 회원국 확대가 내부 의견 일치를 더 어렵게 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어 향후 브릭스의 행보 및 결집력에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그림 16] 2023년 9월 기준 브릭스 회원국 현황



자료: IMF

외채상환태도

비교적 양호한 외채상환태도

- 남아공은 아프리카 국가들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외채상환 태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파리클럽 등의 채무재조정이나 IMF 등 국제금융기구들에 대한 연체는 없음.
- 2023년 3월 말 기준 OECD 회원국의 ECA에 대한 외채규모는 23.1억 달러(단기 6.7억 달러, 중장기 16.4억 달러)이며, 연체비율은 0.95%로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국제시장평가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 등급	종전 평가 등급
OECD	4등급 (2023.06)	4등급 (2022.07)
Moody's	Ba2 (2023.05)	Ba2 (2022.04)
Fitch	BB- (2022.11)	BB- (2022.07)

주요 국제신용평가사는 기존 등급 유지하되, 신용등급 전망은 하향 조정

- 2020년 이후 주요 국제신용평가사는 남아공의 국가신용등급을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하고 있음. 다만, 일부 평가사는 등급은 유지하되, 신용등급 전망은 조정함.
- Moody's(2022. 4월)는 원자재 가격 인상 등으로 인한 수출액 증가로 남아공 재정 상태가 중장기적으로 개선될 것을 반영하여 남아공 신용등급 전망을 'Negative(부정적)'에서 'Stable(안정적)'으로 상향함.
- 한편, OECD는 2015년 6월 남아공의 신용등급을 3등급에서 4등급으로 한 단계 강등한 이후 현재까지 유지 중임.

- 남아공은 2022년 GDP 기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2위이자 한반도의 약 5배에 달하는 국토면적을 보유한 경제대국임. 남아공 경제는 2022년에 기준금리 인상, 높은 실업률, 전력 부족 심화 등 문제로 인해 2.0%의 성장을 기록하였으며, 2023년에는 성장률이 1% 미만으로 내려갈 전망이다.
- 2023년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중은 인프라 확충과 경기부양 정책 등에 따른 재정지출 증가로 전년(-4.5%) 대비 악화된 -6.0%에 육박할 전망이며, 경상수지는 내수 침체에 따른 수입 급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글로벌 수요 약화에 따른 수출국에 대한 교역량 급감으로 GDP 대비 -2.0%에 가까운 적자가 전망됨.
- 집권 여당인 아프리카민족회의(ANC)는 약 30여년을 집권해오면서 무능과 부패 등으로 지지도가 하락하고 있음. 2024년 5월 예정된 총선을 앞두고 ANC는 부정 부패 척결, 전력 공급 활성화 계획 등 민생 안전을 돌보는 정책을 통해 지지율 확보에 나서고 있으나 이번 총선에서 승리할지 귀추가 주목됨.